

## 부산의 해양관련 평생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탐색

류미현 · 원효현\* · 강버들\*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 \*\*부경대학교)

###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Vitalizing Plan of Ocean related Lifelong Education in Busan

.Mi-Hyun LYU · Hyo-Heon WON\* · Beodeul KANG\*  
(Bus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alities and find vitalizing plan of ocean-related lifelong education in Busan area. 190 staff memb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in Busan were participated in questionnaires for investigating this topic.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ly, staff memb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recognized that citizens were needed to expand ocean consciousness. Secondly, they recognized that ocean-related lifelong education had to be conducted for inspiration of ocean consciousness. Thirdly, 65.8% of them had practice will to manage ocean-related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the future. Based upon these results, our suggestions for strategies to revitalize ocean-related lifelong education in Busan were as follows. Firstly, a customized program of ocean-related lifelong education for citizens of Busan, ocean city, has to be developed and come into wide use. Secondl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usan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utilizing learning material. Thirdly, systematic support plan for ocean-related lifelong education has to be needed. Lastly, participants' network for ocean-related lifelong education has to be established

**Key words : Realities, Vitalizing method, Ocean related lifelong education**

#### I. 서론

기후변화, 경제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세계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으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21세기 경제성장의 돌파구로서 해양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해양 이용의 방법을 뛰어넘어 마지막 남은 미지의 세계로서 해양의 무한한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이 인류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회로 부각

되고 있는 이 때, 21세기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선도적인 해양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국가차원에서 해양교육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제정·시행된 「해양기본법」에 근거하여 해양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여 2008년 「해양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OPRF)에서 「해양교육 그랜드 디자인」 발간하는 등 활발한 해양교육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도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2, wonhyo@pknu.ac.kr

여 2008년 「국가 해양사업 발전 계획 요강」을 수립하고, 「중국해양교육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11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해양교육 등이 강화된 「해양기본법」 제정을 발의하는 등 해양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2006년 COSEE(The Center for Ocean Science Education Excellence)에서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Ocean Literacy」로 설정하였다. 2008년에는 「NOAA 교육전략계획:2009 -2029)」을 수립하고, 2010년에는 해양 「Stewardship에 관한 대통령 명령」을 채택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Future Country Oceans Strategy Report, 2006).

Kim Sam-gon, etc(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 교과와 보통교과 중 해양교육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 내용이 미흡하며 교과서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 교과과정에서도 해양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정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양 기본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Yoon Ok-kyong (2006)의 연구 결과처럼 최근의 평생교육에서도 해양관련 교육은 그리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메카이자 우리나라 제 1의 해양도시이지만, 부산 시민들조차 해양지식과 해양의식이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해양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해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넘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부산 시민의 해양 정서 고취 및 해양의식의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해양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21세기 세계 일류 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해양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되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 관련 시민교육은 미미한 상태이다. Yoon Ok-kyong(2006)과 Hong Sun-gyong (2005)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이 소외되어 있다. 양적인 면에서도 현저히 낮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단순 체험 프로그램이나 한시적 교육에 치우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인 해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의 평생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양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부산의 평생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부산의 평생교육기관들은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최고의 항구 도시인 부산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 시민들에게 해양교육을 하는 것은 해양의식의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는 해양 도시인 부산을 이끌어 갈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해양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여 해양의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해양환경의 가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양교육이 필요하다(Lee, 2013)

해양교육은 단순히 해양에 대한 교육을 넘어 해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양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영역을 넓히며, 각종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교육에 있어서 해양을 하나의 독립된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양이 여러 교과목의 학습 소재로 자연스럽게 이용되기도 한다. 해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성과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해양의 유용성 및 실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강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외재적인 동기와 더불어 해양교육을 통해 미래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인식, 진취성 고취, 감수성 발달 등의 내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Kim, 2010).

일반적으로 해양교육이란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른 인식확산을 유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해양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해양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Mun(2012)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지역 해양교육 관련 교육대상자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일반인, 및 전 연령 등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전체의 약 3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학생 24.9%, 고등학생 9.6%, 교사 7.6%, 일반인 8.1%, 전 연령 12.2%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조사 결과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중·고등학생을 합한 비율과 비슷하다. 교사와 일반인, 가족들 모두 참여하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초등학교 때 잠시 이루어진 교육이 시민의 해양성을 함양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부산 시민들의 해양의식의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해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측면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의 평생교육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부산 지역 평생교육기관, 해양교육기관 등 총 653개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3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Table 1>과 같이 모집단 중 직접 방문 면접 조사 및 전자 우편 조사에 참여한 190명이 참여한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Table 1> Affiliated institute of respondents

division	respondents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with lifelong education	60
welfare institute	32
government office	25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23
library	20
juvenile institute	19
ocean institute	9
research institute	2
total	190

#### 2.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부산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 연구하기 위한 설문지 문항은 Lee, Jong-seok, Lee, Choong-reul(2014)의 설문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Table 2>와 같이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8문항,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실태 7문항, 해양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요인 4문항, 기타 1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산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Component of a questionnaire content

content	N of items
recognition for ocean related lifelong education	8
reality of ocean related lifelong education	7
necessity element for cultivation of ocean consciousness	4
and so on	1
total	20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 직원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 1) 해양에 대한 인식 조사

###### (1)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Table 3>과 같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평점은 4.39점(5점 만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44.7%, ‘중요하다’ 49.5%, ‘보통이다’ 5.8%로, 응답자 대부분은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3> Recognition for important of ocea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very important	85	44.7
important	94	49.5
normal	11	5.8
total	190	100
average point	4.39	

\* total average point : 5 point

###### (2) 바다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Table 4>와 같이 바다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행 및 치유’ 40.5%, ‘시원함과 푸르름’ 30.0%, ‘인류의 마지막 보고’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Table 4> Recognition for image of sea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travel and healing	77	40.5
fresh and blue	57	30.0
last treasure of humanity	22	11.6
activity of fisher market	13	6.8
shore dish	6	3.2
marine dominium (Dok-do etc.)	5	2.6
natural disaster(typhoon etc.)	3	1.6
and so on	7	3.7
total	190	100

###### (3) 바다에 대한 친근감

<Table 5>와 같이 바다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서는 ‘매우 친근하다’ 30.0%, ‘친근하다’ 45.3%, ‘보통이다’ 21.1%,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2.6%, ‘전혀 친근하지 않다’ 1.1%로 응답하였다. 평점이 4.01점(5점 만점)인 것으로 보아 바다에 대한 친근감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5> Affection for sea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very affect	57	30.0
affection	86	45.3
normal	40	21.1
no affection	5	2.6
never affection	2	1.1
total	190	100.0
average point	4.01	

\* total average point : 5 point

###### (4)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

<Table 6>과 같이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는 ‘해양수도 부산의 중요한 경제성장 동력’

67.4%, '3D업종' 12.6%, '고소득 전문직' 11.6%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전히 해양관련 직업을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해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답게 여전히 해양관련 직업을 부산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Table 6> Recognition for ocean job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motive power of important economy development	128	67.4
3D industry	24	12.6
high-earning profession	22	11.6
negative recognition	6	3.2
and so on	10	5.2
total	190	100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부산의 해양관련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해양관련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평생교육기관의 입장에 앞서 부산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정서적인 긍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해양관련 직업과 뱃사람이란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해양의식의 저변 확대에 대한 인식
  - (1) 해양의식 저변 확대의 필요성

<Table 7>과 같이 해양의식 저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확대되어야 한다' 24.2%, '확대되어야 한다' 65.3%, '보통이다' 10.0%, '확대되지 않아도 된다' 0.5%로 나타났다. 평점은 4.13점(5점 만점)인 것으로 보아, 해양의식의 저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7> Necessity of ocean consciousness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very expand	46	24.2
expand	124	65.3
normal	19	10.0
not expand	1	0.5
total	190	100
average point	4.13	

\* total average point : 5 point

(2) 해양의식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Table 7>과 같이 해양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3순위까지 택하라는 문항에 대하여, 1순위는 '해양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 2순위는 '해양관광 장려 및 바다축제', 3순위는 '해양관련 진로교육', 4순위는 '해양관련 시민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8> Method for expansion of ocean consciousness

division	1st		2nd		3rd	total (A+B+C)	ranking
	frequency	frequency*3(A)	frequency	frequency*2(B)	frequency(C)		
reinforcement of ocean experience program management	45	135	52	104	38	277	1
ocean tour promotion & sea festival	61	183	20	40	19	242	2
ocean career education	16	48	34	68	25	141	3
ocean related citizen club	13	39	20	40	16	95	4
ocean territory protection & Dok-do education reinforcement	14	42	13	26	17	85	5
marin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12	36	12	24	11	71	6
ocean portal site operation & contents development	6	18	13	26	15	59	7
ocean related workshop & seminar for citizen	6	18	12	24	9	51	8
advertisement(video etc.)	5	15	6	12	11	38	9
advertisement(brochure, pamphlet etc.)	6	18	3	6	10	34	10
ocean related teacher training enforcement	4	12	2	4	14	30	11
etc	2	6	1	2	2	10	12

<Table 7>,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해양의식의 저변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양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양도시의 특성상 해양관련 체험프로그램(1순위)과 해양관광 및 바다축제를 강화(2순위)하자는 안이 우세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양관련 진로교육(3순위)과 시민동아리 활성화 사업(4순위) 부분의 응답이 상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양관련 진로교육과 시민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원한다는 것으로 보아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2.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 직원들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 1) 해양교육 및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필요성

#### (1) 해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Table 9>와 같이 해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25.8%, ‘그런 편이다’ 51.6%, ‘보통이다’ 2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로 나타났다. 평점은 4.02점으로 해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9> Recognition for necessity of ocean educatio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very agree	49	25.8
agree	98	51.6
normal	41	21.5
not agree	2	1.1
total	190	100
average point	4.02	

\* total average point : 5 point

#### (2)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Table 10>과 같이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 18.5%, ‘중요하다’ 56.8%, ‘보통이다’ 24.7%로 나타났고, 평점은 3.94점이었다.

<Table 10> Consciousness importance of ocean lifelong educatio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very important	35	18.5
important	108	56.8
normal	47	24.7
total	190	100
average point	3.94	

\* total average point : 5 point

<Table 9>,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교육의 필요성(4.02)과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중요성(3.94)을 비교해보면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평점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의식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Table 7)는 인식과 그에 대한 방안으로 해양관련 체험프로그램, 해양관련 진로교육, 시민 동아리 확대 등의 요구(Table 8)가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분석된다. 현재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미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Kim, 2010)고, 언급한 것처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 2)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효과

<Table 11>과 같이 해양관련 평생교육 실시의 효과에 대하여 ‘해양도시 부산시민으로서의 의식

<Table 11> Effect for ocean lifelong educatio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consciousness expansion of ocean city Busan citizen	81	24.2
concern for ocean development & ocean environment protection	80	23.8
leisure sports of Busan ocean resource	77	23.0
extension of career & job choice	41	12.2
consciousness expansion for ocean territory protection	31	9.3
ocean tour promotion of Busan & concern for sea festival	25	7.5
total	335	100

\* answer: more than two

<Table 12> Category of ocean lifelong education

division	ranking 1		ranking 2		ranking3	total (A+B+C)	ranking
	frequency	frequency*3(A)	frequency	frequency*2(B)	frequency (C)		
ocean environment program	37	111	60	120	34	265	1
ocean culture art education & ocean literae humaniores	45	135	22	44	32	211	2
ocean experience program	32	96	32	64	14	174	3
ocean development education	27	81	26	52	41	174	3
ocean career education	14	42	19	38	32	112	5
ocean science education	20	60	13	26	19	105	6
ocean territory protection education	9	27	13	26	7	60	7
Busan study education	5	15	4	8	7	30	8
etc.	1	3	-	-	-	3	9

저변 확대' 24.2%, '해양개발 및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 23.9%, '부산지역 해양 자원을 활용한 여가 선용(레포츠 활동 등)' 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해양관련 평생교육이 고려해야 할 분야

<Table 12>와 같이 해양관련 평생교육이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 3순위까지 택하라는 문항에 대하여, 1순위는 '해양환경 교육', 2순위는 '해양문화·예술교육 및 해양 인문학', 3순위는 '해양레포츠 및 체험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해양발전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4) 효과적인 해양관련 평생교육 방안

<Table 13>과 같이 가장 효과적인 해양관련 평생교육 방안으로는 '해양체험 프로그램(레포츠 활동 등)' 46.4%, '바다관련 여행(섬, 갯벌, 선박 활용 등)' 24.2%, '해양관련 전시관·박물관을 활용한 교육'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관련 평생학습의 가장 큰 효과로는 부산시민의 해양의식에 대한 저변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해양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교육이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관련 평생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해양환경, 해양문화, 해양레포츠 등의 해양관련교육과 지속가능한 해양발전교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해양교육 방안으로 해양체험프로그램이나 바다관련 여행이나 승선 등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해양관련 평생교육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석된다.

<Table 13> Plan of effective ocean lifelong educatio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ocean experience program	88	46.4
sea related tour(island, beach & ship utilization)	46	24.2
education by ocean related exhibition, museum	30	15.8
education by professional lecturer	12	6.3
audio-visual education	9	4.7
and so on	5	2.6
total	190	100

3.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들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

1)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

(1)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

<Table 14>와 같이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그렇다' 21.1%, '그런 편이다' 57.9%, '보통이다' 2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로 나타났으며, 평점은 3.99점

(5점 만점)이었다.

<Table 14> Practice will of ocean lifelong educatio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very agree	40	21.1
agree	110	57.9
normal	38	20.0
not agree	2	1.0
total	190	100
average point	3.99	

\* total average point : 5 point

(2)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Table 15>와 같이 응답자가 속한 기관에서 해양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하여 ‘예’가 18.4%, ‘아니오’ 81.6%로 나타났다.

<Table 15> Operation of ocean lifelong education program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yes	35	18.4
no	155	81.6
total	190	100

(3) 운영되는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

<Table 16>과 같이 응답자가 속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해양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분야에 대하여 ‘해양레포츠 및 체험프로그램’ 42.9%, ‘해양 환경 교육’ 28.5%, ‘해양문화·예술교육 및 해양 인문학’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6> Category of ocean lifelong education program ru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ocean experience program	15	42.9
ocean environment program	10	28.5
ocean culture education	4	11.4
ocean science education	3	8.6
ocean career education	1	2.9
and so on	2	5.7
total	35	100

(4) 운영되는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Table 17>과 같이 응답자가 속한 기관에서 운

영되는 해양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아동(유아~초등학생)’ 34.3%, ‘청소년(중학생~고등학생)’ 34.3%, ‘성인(졸업이후~55세)’ 14.3%, 노인(55세 이상)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여전히 해양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개발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학생 위주의 기초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Table 17> Participant of ocean lifelong education program ru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preschooler	12	34.3
teenagers	12	34.3
adult	5	14.3
senior(55 and over)	1	2.8
and so on	5	14.3
total	35	100

(5) 운영되는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Table 18>과 같이 응답자가 속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해양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받은 후 학습 대상자의 교육 만족도는 ‘매우 높다’ 17.1%, ‘높다’ 65.7%, ‘그저 그렇다’ 14.3%, ‘매우 낮다’ 2.9%로 나타났으며, 평점은 3.94점(5점 만점)이었다.

<Table 18> Learner satisfaction for ocean lifelong education program run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very high	6	17.1
agree	23	65.7
normal	5	14.3
not high	1	2.9
total	35	100
average point	3.94	

\* total average point : 5 point

부산의 평생교육 기관들의 해양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의지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Table 14). 부산은 21세기 동북아 해양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 기관에서의 해양관련 교육프로그램은 18.4%에 그치는 수준이다(Table 15). 그러나 운영되고 있는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이므로(Table 18), 앞으로 대상의 수준에 맞는 해양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연수교재의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2) 기관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

(1) 향후 해양관련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실천 의지

<Table 19>와 같이 응답자가 속한 기관의 향후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의사에 대하여 ‘예’ 65.8%, ‘아니요’ 34.2%로 나타났다.

<Table 19> Practice will for Operation of ocean lifelong education program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yes	125	65.8
no	65	34.2
total	190	100

(2) 향후 운영하고 싶은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

<Table 20>과 같이 향후 운영하고 싶은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분야는 ‘해양레포츠 및 체험프로그램’ 45.6%, ‘해양문화·예술교육 및 해양 인문학’ 20.8%, ‘해양환경 교육’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운영 희망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대상자

<Table 21>과 같이 향후 운영을 희망하는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대상자는 ‘청소년(중,고등학생)’ 41.6%, ‘아동(유아~초등학생)’ 30.4%, ‘성인(졸업 이후~55세)’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0> Category of ocean lifelong education program run in future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ocean experience program	57	45.6
ocean culture education	26	20.8
ocean environment education	15	12.0
ocean development education	8	6.4
ocean career education	7	5.6
ocean science education	4	3.2
ocean territory protection education	4	3.2
Busan study education	3	2.4
and so on	1	0.8
total	125	100

<Table 21> Participant of ocean lifelong education program run in future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preschooler	38	30.4
teenagers	52	41.6
adult	27	21.6
senior(55 and over)	1	0.8
multiculture family	1	0.8
underprivileged & disabled	1	0.8
and so on	5	4.0
total	125	100

응답자가 속한 65.8%의 기관이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실천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9), 운영 희망 분야는 해양관련 체험프로그램(45.6%)과 해양인문학(20.8%)에 선호도가 높았다. 운영 희망 예정 프로그램 대상자는 여전히 청소년들을 선호하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의 평생교육기관들은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운영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강사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 개발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런 결과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와 해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은 시민의 해양의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해양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나 단순히 즐기는 바다와 정서적 바다라는 한계가 있었다. Future Country Oceans Strategy Report(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친해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의식은 2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아 즐기는 바다는 좋으나, 해양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불균형적인 국토개발, 유학 지향적인 교육, 해양 직업군에 대한 낮은 인식과 효율적인 해양교육이 진행되지 못함일 것이다. 하지만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교재 보급, 전문 강사 연수지원 등을 통해 부산지역 평생학습 기관에 의한 해양관련 평생교육은 충분히 활성화 가능하다. 해양의식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바다관광 및 축제, 해양관련 진로교육과 시민동아리 활성화사업이었다. 해양과 관련한 진로교육을 통해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은 해양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해양관련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해양관련 평생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는 해양환경과 지속 발전 가능한 해양개발 분야였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자각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 때문이라 여겨진다.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해양교육 의지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현재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조사 기관 기준 1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해양교육은 생소한 부분이며, 주로 한시적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진행되어 해양관련 평생교육 분야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을 느

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관에서 진행되는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경우 만족도는 높았으나, 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해양교육 관련 계획은 ‘청소년 해양교육계획(2005-2010)’이 유일한데 이 또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Kim Sung-gwi etc.(2010)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해양 체험프로그램이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들에게 있어 해양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그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향후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살펴보면 조사 기관의 65.8%가 해양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실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m Hye-min(2010)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지식 습득의 이론교육이나 현장체험 보다는 해양체험을 문화와 예술로 접목시키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인 해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은 시민의 해양의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은 해양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해양관련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지역 해양관련 평생교육은 해양체험프

로그로 위주로 청소년 대상의 교육이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 향후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살펴보면 조사 기관의 65.8%가 해양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실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을 위한 해양교육프로그램개발, 교재 및 학습 자료의 제공, 강사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의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부산의 해양관련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도시 부산 시민을 위한 맞춤형 해양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경우 학생대상 체험프로그램이나 해양관련 직업교육 등 두 갈래의 교육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으로는 결코 해양도시 부산 시민의 해양에 관한 의식의 저변확대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자나 경제성 위주의 교육에서 폭넓게 교육 대상을 부산시민 전체와 부산지역 해양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부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학습 자원의 이용이다. 부산의 해양교육 자원으로는 부산지역 동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낙동강 하구가 있다. 기반 시설로는 세계적인 항만과 동삼동 혁신지구 클러스터 내의 해양 유관기관들, 국립해양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국립수산물자원,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전문디지털도서관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는 전국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부산만의 유일한 해양자원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자원과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부산시민을 위한 해양관련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해양관련 평생교육 지원 방안의 마련이다. 부산지역에서 진행되어지는 대부분의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경우 교육 주체별로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과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주이며, 대부분 비슷한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예산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및 강사진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조체제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또한 테마별 해양교육, 수준별 교육단계의 정비, 대상별 교재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련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관련 평생교육 참여자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시민대상 해양관련 평생교육과 관련된 강사, 시민학습자, 해양관련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Future Country Oceans Strategy Report(2006).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Hong. Sun-gyong(2005). Study of Korean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deas to Promote It.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Jee. Chang-hoon, Ji Sam-up(2013). The Effect of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on Socia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5(5), 1123~1135.
- Kim. Sam-gon, Kim. Jong-hwa(2004). The Contents Analysis of Ocean Environment of Textbooks for Fisheries-Marine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vol. 30, No.0, 143~155.
- Kim. Hye-min(2010).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South Korea Marine Education and Development Plan.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so-yoon, Shin Koun-soo, Kim. Yong-jae, Lee. Dong-woo(2014). Motivation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Marine Sports Emotional Impact of Exercis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6(4), 677~685.
- Kim. Sung-gwi, Hong. Jang-won, Lee. Yun-jung, Lee. Seul-gi(2010). The Study on the Ocean Education Basis. Korea Maritime Institute, Vol. 2010 No.0
- Lee. Cho-hee(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Ocean Education Policy Instruments on the Ocean Consciousness.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 Lee. Jong-seok, Lee. Choong-reul(2014). Estabalishing and Vitalizing Method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Busa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6(2), 368~381.
- Lyu. Mi-Hyun(2013). Ocean Lifelong Education Present State and Promotion Way. Bus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Mun. Sung-bae, Jun. Sung-hawn(2012). Studies on actual state and revitalization of ocean education in Bus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Yoon. Ok-kyong(2006). The Role of Geograph Education in Mar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4).
- Yun. Sun-sook(2014). Study on the Impact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Lifestyle, and Spouse Correlation on Successful Aging Recognition in Married Women.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 논문접수일 : 2014년 10월 2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11월 06일  
2차 - 2014년 12월 0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02일